2025 월출산 국화축제 영암 기찬랜드서 개막

'품격 있는 쉼, 꽃으로 만나는 가을' 주제로 23종 국화 20만 송이 작품 전시

가을의 정취가 짙어지는 월출산 자락에 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30~11/16일 월출산기찬랜드 일원에서 '2025 월출산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품격 있는 쉼, 꽃으로 만나는 가을'을 주제로 삼은 올해 행사는, 전시에 초점을 맞춰 준비됐다.

주 행사장인 월출산기찬랜드 곳곳에는 조형물, 분재국, 모형작, 그라스류 등 23종 20만여 점의 국화가 전시돼, 산책하며 즐기는 가을 정원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형 조형물은 '마한문'으로 월출산의 기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대 마한의 심장인 영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 상징물과 함께, 지난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고려첨성대', '하늘아래 첫부처 마애여래좌상'도 재전시돼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한다.

전시장은 ▲핑크뮬리와 팜파스로 꾸민 '그라스권역' ▲포뮬러원(F1) 레이싱카와 캐릭터 조형물이 배치된 '어린이권역' ▲국화연구회원과 지역 농가가 함께 꾸민 '분재전시권역' 등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암군은 영암군민 참여 국화축제의 기조를 올해도 이어 전시작품을 마련했다.

전시에 쓰인 국화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계약 재배한 지역 화훼농가들이 1년간 정성을 다해 길러낸 작품들이고, 이들 농가는 전시 연출에도 참여했다.

국화축제장에는 영암 농특산물 부스가 운영돼 영암 농가 등에서 재배·가공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이 판매된다.

11/15~16일 이틀간은 한우·한돈·가금 등 축산물 할인판매장도 열려 관광객들에게 경제적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푸드 소비 촉진 등도 모색된다.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화장실 정비, 종합안내소와 의료 지원본부 운영 등도 마련돼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월출산 국화축제는 영암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이다. 올가을 월출산 국화 향기 속에 따뜻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은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11월 특별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에 방문하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의 지역화폐 '월출페이'를 지원하는 행사에 추가 지급 혜택을 더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이벤트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청정 완도에서 가을 섬 여행하고 '치유됐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18,000여 명 다녀가며 성황

'완도왔섬, 치유됐섬'을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완도 일원에서 열린 「2025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간 18,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올해 행사는 완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쉼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을 감성 포토존, 체험 마당, 지역 특색을 살린 완도호랑가시 체험존과 독서 문화 축제 프로그램은 즐거움과 힐링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해양치유 홍보관에서는 국내 유일 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인생 네 컷 이벤트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전복 버터 구이 등 무료 시식회와 함께 전복 판매관도 운영해 특산물 홍보 효과도 얻었다.

최경주 광장에서는 퍼팅 이벤트, '행운 봉 잡았섬' 등 다채로운 경품·참여 이벤트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줄이 끊이질 않았다.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타워 일원에 총 4만 본의 국화가 전시돼 관람객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 외에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완도수목원에서 '그린 숲 페스티벌', 생일면 금곡 해수욕장에서 '멍 때리기 대회', 청산면에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은하수 투어', 신지면에서 '맨발 걷기 페스티벌' 등이 진행돼 가을 섬 여행의 풍성함을 더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섬의 매력과 해양치유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대학생들의 열정과 기술이 만났다!

'2025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성황리 종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전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영광군, (사)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3개 대학, 55개 팀,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차량 성능, 슬라럼·가속경기, 내구레이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치열한 경쟁 끝에 EV 부문 대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DS팀이, 기술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항공대학교 KAUVOY팀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2년 전부터 운영해온 '테스트 위크(Test Week)'를 통해 참가 대학생들의 기술력과 차량 완성도가 매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 연구개발 환경에서 차량 주행 성능과 효율을 반복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 경험을 축적, 대회의 수준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사전 준비와 본 대회 기간 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 가족, 운영진, 학교 관계자 등 하루 평균 2천여 명 이상이 영광을 방문해 숙박·음식·관광 소비가 늘어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10억 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들이 기술로 경쟁하며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라며, "영광군은 앞으로도 청년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e-모빌리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보성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특별 할인

기존 15% 할인에 추가 5% 환급으로 최대 20% 혜택 제공

보성군은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2025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에 대한 2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정부 주관의 대형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지역 상권 회복, 군민 소비 심리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기존 선할인 10%와 9월부터 시행 중인 5% 환급(캐시백)에 더해 이번 페스티벌 기간 추가로 5% 환급 혜택을 제공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총 15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지역 상권 매출 회복과 소비 심리 진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흥 통일열차, '추억의 기차 프로그램' 특별한 추억 선물

장흥군은 24일 운행된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에서 추억의 기차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철원 평화안보 현장을 견학하기 위한 통일열차 속, 기차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열차 내에서는 과거 무궁화호의 카트 서비스를 재현한 간식 판매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김재승 군의장이 옛날 역무원 복장을 하고 객차 사이를 오가며 탄산음료, 오징어, 땅콩 등 추억의 간식을 직접 판매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객차 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역무원 안내 방송을 패러디한 재치 있는 멘트를 선보이며 열차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

"잠시 후 등장하는 간식 카트는 여러분의 추억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통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유쾌한 멘트가 흘러나올 때마다 객차마다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참가자는 "철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즐거웠다. 진짜 옛날 기차를 타고 있는 기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간식 수익금 68만 원 전액은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으로, 통일열차의 의미를 나눔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행보가 더해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일열차가 평화를 위한 탐방을 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세대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진도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도 18호선 임회면 신동리에 스마트 휴게 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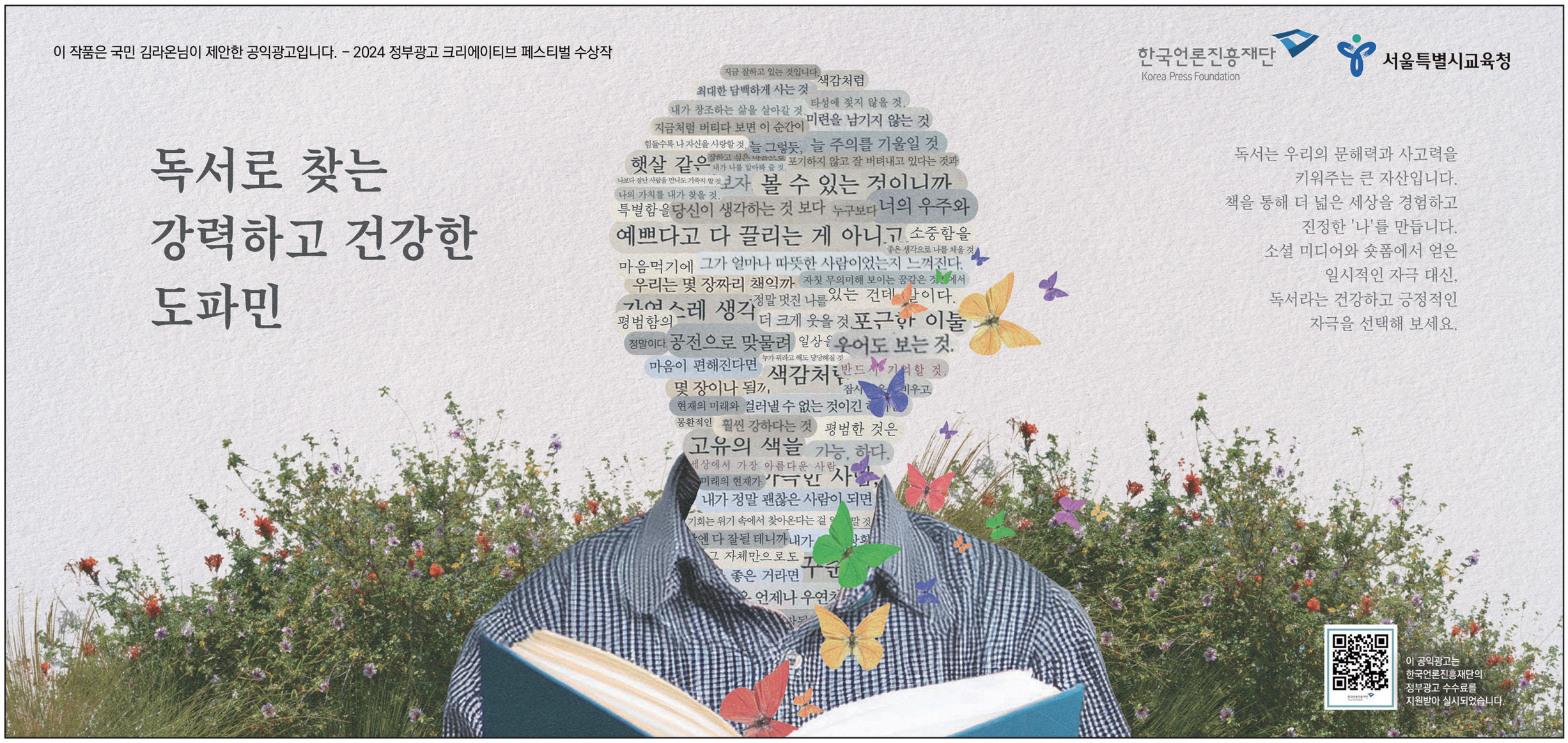
진도군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복합형 휴게 쉼터를 국도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에게 휴식,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으며, 진도군은 총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국도 18호선인 임회면 신동리 인근(약 7,628㎡ 부지)에 2026년부터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복합쉼터'에는 ▲실시간 주차 안내 시스템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그늘막 등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 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키오스크'를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문화 해설 운영 등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휴식과 체험, 학습이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스마트 복합쉼터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자, 진도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